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악보의 보유현황과 개선방안

정지영*, 이미애**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urrent Status of Digital Braille Music and Policy Proposal

Ji-Young Jung*, Mee-Ae Lee**

Dept. of Music, Hansei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악보는 문화예술의 향유에서부터 전문적인 음악교육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도구이다. 점자악보의 제작은 점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주문제작보다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점자악보의 제작과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점자악보 보유현황은 절대적으로 열악하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를 전수 검토함으로써 점자악보의 용도별, 편성별, 악기별, 장르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제작된 전자점자악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음악점역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초등학교부터 음악전문가까지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의 단계별 스펙트럼을 반영하도록 체계화 한다.

주제어 : 시각장애인, 문화권, 문화복지, 전자점자악보, 융복합

Abstract Digital braille music is an indispensable instrument for the blind persons to enjoy music and to proceed the more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Producing braille music requires professionals such as braille translators thereby it costs money for an individual to order braille music. Therefore, public libraries involve in producing and distributing braille music. Current status of digital braille music in Korea has been far from the fulfillment with the unmet needs of the blind people for diversity in their music preferences. This paper analyses the present condition of braille music possession in Korea National Library. Based on the analysis, policy proposals has been proposed.

Key Words : the blind, cultural rights, cultural welfare, digital music braille, multi-disciplinar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욕구 충족의 패러다임에서 문화적·정신적 욕구 충족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1,2]. 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

Received 9 June 2015, Revised 28 July 2015

Accepted 20 August 2015

Corresponding Author: Mee Ae Lee(Hansei University)

Email: meeae@hansei.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으로 문화예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문화바우처정책이 2005년에 시작되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의 문화예술 상품에 50% 디스카운트를 실시하는 등 문화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것을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3, 4].

이러한 문화권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가진다. 제약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제공되는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은 일괄적인 해결방안을 집행하는 것으로는 문화권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에 있어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제약의 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등급별로 세심하게 부응하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만 이러한 접근성과 이용 관련 제약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5].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거나 창조하려고 할 때 장애유형마다 저마다의 취약점이 있는데 허용현 외(2014)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접근, 열람, 이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도서관을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 같은 시설설비나 매체개발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6].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서만이 읽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치된 자료를 점자 및 음성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점역원, 교정원, 음향편집원, 등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위한 정보서비스 환경은 열악하다[7].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해도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점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자료가 있어도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현장에서는 1주에 세 번 2시간씩 점자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각장애인의 약 22 퍼센트만이 점자를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1990년대 이후 점자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고

2015년 현재 총 37개관이 운영되고 있다[9]. 이 가운데 문화관광부 등록 26개관, 보건복지부 산하 6개관, 미등록 5개관 등으로 집계된다. 점자도서관의 경우 주로 도서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전자점자악보제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여가를 위한 문화활동은 주로 TV시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희망하는 활동 가운데 여흥(50.8 퍼센트), 운동·등산·낚시(30.3 퍼센트), 컴퓨터통신·오락(20.0 퍼센트)에 이어 음악감상·노래부르기·악기연주(16.0 퍼센트)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음악은 장애인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즐기는 여가문화활동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때 제약이 뒤따른다[10].

2015년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총 252,825명에 달한다[11]. 이 가운데 선천적 장애도 있으나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후천적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장애출현률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의 개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인쇄매체를 읽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독서장애인'이라 부르고 많은 연구들에서 독서장애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면서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2, 13]. 이러한 역학적, 사회인구학적 추세는 점자도서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점자악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음악점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의 일환으로 특히 점자악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음악감상·노래부르기·악기연주 같은 음악활동의 향유부터 음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음악교육에도 가장 기초가 되는 점자악보의 보유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전자점자악보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점자

악보를 전자점자악보의 형태로 보관 및 보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형태로 보관된 파일에 대해 요청하게 되면 점자악보 형태로 인쇄되어 보급하는 체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는 총 2,380건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진이 2,380건의 전자점자악보 전체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일일이 검토하여 악보의 용도, 편성, 악기, 장르별 사항을 엑셀파일에 추가로 기입한 후 빈도와 백분율로써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점자자료 현황

<Table 1>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보유 현황을 보여준다. 전자점자악보파일 2,380건, 예술관련 전자점자자료 25건, 점자도서 25권, DAISY 421건, VBF 38건, 유관기관보유점자자료 2,700건으로 나타났다.

전자점보악보로 검색한 결과, 총 2,380건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¹⁾ 각 파일 안에는 점자악보 뿐만 아니라 음악관련 전문도서가 섞여 있거나 동요집 같은 파일은 한 파일 안에 여러 곡을 수록하고 있어서 정확한 점자악보의 수만을 집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파일 수로 대신하고자 한다.

2,380건의 전자점자악보 파일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로 25건의 예술관련 전자점자자료와 25권의 점자도서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25건 중 11건이 음악관련 전자점자자료였고 후자의 25권 중 18권이 음악관련 점자도서였다.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시각장애인이나 독서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음성/문서포맷)는 421건 중에 34건이 음악관련 자료였고 VBF(Visual 시각장애이용파일-전자교재)는 총 38건 중에 4건이 음악관련 자료에 해당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점자악보 및 예술관련 자료

1) 2015년 6월 16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점자악보 보유 현황은 2,367건이다. 그러나 전체목록에는 2,380건의 전자점자악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가 나타난 2,380건의 목록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2,700건으로 따로 목록화 되어 있는데 이 2,700건의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에 위치한 도서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유관기관에 산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점자자료이다. 온라인상으로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 자료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의 출처 등과 같은 간접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2,700건에 해당하는 점자자료 자체에 대한 열람은 불가하였다. 따라서 2,700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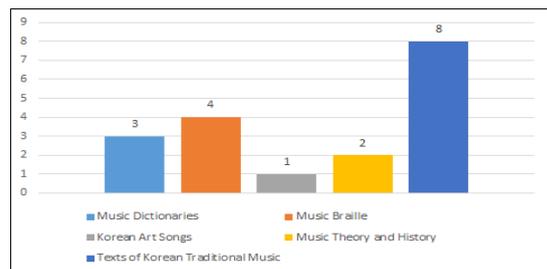
<Table 1> Music Braille in Korea National Library

Digital Music Braille	2,380	Digital Braille	11(25)
Braille Books	18(25)	DAISY	34(421)
VBF	4(38)	Related Organizations	2,700

(Sourc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보유 현황 가운데 총18권의 음악분야 점자도서를 내용별로 기술하면 [Fig. 1]과 같다. 음악사전류 3권, 음악점자악보에 대한 해설서 4권, 음악이론서와 음악사 2권, 한국가곡집 1권, 한국 전통악기를 배우는 교본 8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의 악기연주를 위한 교재에 치중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

국악교육에 필요한 교본 8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배우는데 필요한 자료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또한 한국가곡집이 1권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음악에 대해 점자악보가 얼마나 미비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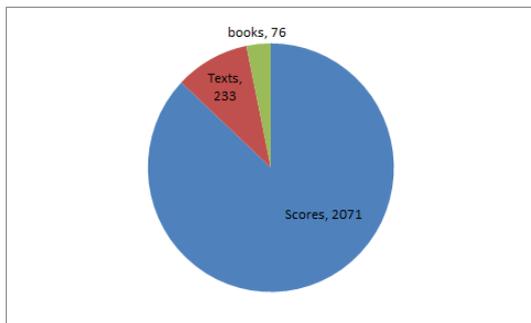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 of Braille Books (N = 18)

3.2 전자점자악보파일 분석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 파일은 악보뿐만 아니라 음악관련 교양도서, 음악전문 이론편서, 악기를 위한 교본서, 대중가요 등을 포함하고 있다.

3.2.1 용도별 분포 (N = 2,380)

[Fig. 2]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파일을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2,380건의 파일은 연주를 위한 악보 2,071건(87.0 퍼센트), 연주교본 233건(9.8 퍼센트), 나머지 76건(3.2 퍼센트)은 전문이론서로써 음악사, 음악이론, 대위법 등 음악교육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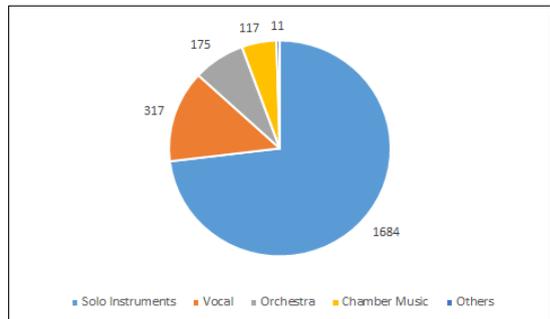
[Fig. 2] Digital Music Braille(N = 2,380)

3.1.2 편성별 분포 (N = 2,304)

전자점자악보파일 2,380건 가운데 전문이론서를 제외한 2,304건이 연주를 위한 악보에 해당된다. [Fig. 3]은 점자악보의 편성별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2,304건 가운데 독주악기를 위한 악보가 1684건, 합창, 가곡 등을 포함한 성악 악보가 317건, 교향악과 협주곡을 포함한 관현악 분야가 175건, 마지막으로 실내악 117건, 기타 11건으로 나눌 수 있다.²⁾ 편성별 분포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독주나 독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주곡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

- 2) 독주악기 부분에서 악기 단독뿐만 아니라 피아노 반주를 포함한 독주곡을 포함하고 있다. 성악부에서는 가곡, 아리아, 합창, 동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내악은 독주악기와 관현악을 제외한 두 개 이상의 악기로 구성된 작품들을 실내악의 범주에 두었다. 기타 11건은 자료상 출처나 작곡가 그리고 장르가 불분명한 자료이다.
- 3) 협주곡의 악보도 주악기와 함께 관현악반주가 아닌 피아노 반주형태의 악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현악 범주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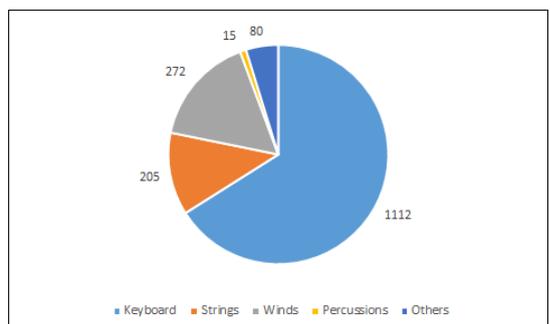
이러한 특성은 성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창의 형태 보다는 독창을 위한 가곡에 점자악보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점자악보파일 2,380건 가운데 성악부분이 317건이었다. 대부분이 이탈리아 가곡이었고 그 다음이 합창, 대중가요, 오페라 아리아 순서의 분포를 보여준다. 오페라의 경우도 전체 오페라 악보는 없고 각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 악보같이 독창에 집중되어 있었다.



[Fig. 3] Classification of Music Braille by Ensemble

3.1.3 독주악보의 악기별 분포 (N = 1,684)

[Fig. 4]에서 보면 전자점자악보파일 가운데 독주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0 퍼센트로서 3분의 2를 넘을 정도로 독주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피아노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하모니카, 오카리나, 색소폰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하모니카, 오카리나, 색소폰 등의 독주는 전문적인 연주라기보다는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차원의 점자악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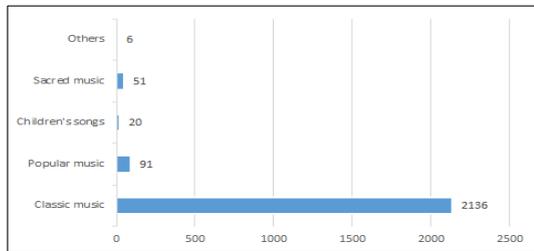
[Fig. 4] Classification of Music Braille by Instruments

한 것은 원래 연주의 형태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3.1.4 장르별 분포 (N = 2,304)

[Fig. 5]는 장르별 분포를 보여준다. 서양 클래식음악 전자악보가 2,136건, 대중음악이 91건, 동요가 20건, 종교 음악이 51건, 그리고 기타가 6건에 해당하였다. 대부분이 서양음악이었고 동요곡집에 간단한 우리나라 민요가 몇 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성악부문에서 장르별로 더 세분화하여 보면 우리나라 창작가곡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한국가곡 80선’ 시리즈로 ‘고독’, ‘대관령’ 그리고 ‘기다림’ 으로 단 세 권이 있었다. 이 외에 우리나라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음악은 종교, 대중음악 그리고 창작동요 분야에 국한되어 점역되어 있다. 또한 실내악 부문에서도 한국 작곡가의 작품은 단 한 작품도 없었다.



[Fig. 5] Classification of Music Braille by Genre

4. 결론 및 정책적 제안

4.1 결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관련 점자 자료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전자점자악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악보를 모두 점자악보로 점역하는 것은 불가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자점자악보의 수량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용도별, 편성별, 악기별, 장르별 분석을 통해 전자점자악보 보유현황이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음악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편향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점자악보가 지나치게 독주나 피아노, 그리고 외국 곡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 각지의 도서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유관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자점자악보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음악활동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즉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음악을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에서부터 작은 연주회를 가지기도 하고 소수에 한정되기 하지만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음악전문가가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동시에 점자악보의 수요자는 대중가요에서부터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점자악보현황은 이러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반영하지 못하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가 점자악보의 낮은 이용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4.2 정책적 제안

본 연구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음악수업이 활성화되고 음악교육의 혜택이 음악활동과 문화와 여가로 이어지고 음악의 향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적인 창조까지 포괄함으로써 모든 복지의 궁극적 지향점인 정상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제작된 전자점자악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점자악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자점자악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학교 등 각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점자악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둘째, 음악점역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업그레이드한다. 다양성은 대중가요에서부터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점자악보가 어느 한 편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욕구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적이거나 필요성만으로 특정 편성, 특정 악기, 특정 장르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욕구는 미충족 되게 된다,

또한 다양성은 국내음악과 국외음악을 두루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자악보의 생성 자체가 서양음악의 악보를 점자화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점자악보의 대부분은 주로 서양음악 장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도 국내음악의 접역이 열악함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 가곡, 성가곡, 그리고 합창곡, 더 나아가 대중음악과 한국 전통 국악 등이 더 많이 점자악보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문화를 다른 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저변을 긍정적으로 확대시켜줄 것이다.

오늘날 매일 엄청난 양의 악보가 출판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생산되는 것을 비교할 때 점자악보의 업그레이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접역기관의 조직화를 통해 지속적인 접역과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15].

셋째, 초등학교부터 음악전문가까지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 단계별 스펙트럼을 반영하도록 전자점자악보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연주의 기술을 구전이나 시연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음악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악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높은 열정과 충분한 재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점자악보 등과 같은 기타 교재의 부재 등과 같은 제약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조사되었다[16].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학습 자료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다 정확하고 정통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점자악보는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재능과 예술성을 고취시켜 높은 음악적 수준으로의 도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자악보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음악을 이해하고 나아가 독창적이고 뛰어난 특유의 예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예술성을 높이고 연주자나 음악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점자악보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악보를 통해 음악적 기초지식을 함께 학습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이고 높은 음악적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에 동요를 배울 때 사람들은 악보를 보면서 배우지만 동요에 대한 점자악보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음악교육의 그 시작단계에서부터 질적 차원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음악교육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며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선과 색을 몰라도 그림을 즐길 수 있으나 선과 색을 교육하게 되면 미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향유하며, 나아가 학습자의 창의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데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정확한 점자악보가 병행되어진 교육은 창의적인 재능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

REFERENCES

- [1] K.Y. Jung, "Cultur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pring, pp. 46-53, 1997.
- [2] Jin Ock Jong, Moo Sung Chung, "A Qualitative Study in Participation in Culture-Art Activitie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9, No 1, pp. 349-369, 2013.
- [3] K.Y. Jung, "Cultur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pring, pp. 46-53, 1997.
- [4] Ho Seong Young, "Issues Regarding the Cultural Voucher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pp. 99-124, 2012.
- [5] K.Y. Jung, "Cultur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pring, pp. 46-53, 1997.
- [6] Y.H. Heo, S.H. Han, Y.G. Kim,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Digital Library for the Blind People", *Digital Library* Vol. 74, pp. 51-68, 2014.
- [7] Jeongeun Seok, "A Study of Document Creation and Management in Braille Libraries", *Archives Review* Vol. 40, pp. 181-223, 2014..
- [8] Y.H. Ahn, C.S. Kim, "Information Education for Visually Handicapped People at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Proceedings of KFIS Spring* Vol. 16, No. 1, pp. 409-412, 2006.
- [9] Jeongeun Seok, "A Study of Document Creation and Management in Braille Libraries", *Archives Review* Vol. 40, pp. 181-223, 2014..
- [10] K.Y. Jung, "Cultur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pring, pp. 46-53, 1997.

- [11] Korea Statistics Office, 2015.
- [12] Mee Ae Lee, “Relative Effects of Health and Family Factors on Geriatric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2, No. 4, pp. 623-635, 2011.
- [13] H.G. Lee, S.A. Kim, J.H. Kim, “Methods to Improv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8, No. 3, pp. 619-643, 2007.
- [14] K.Y. Jung, “Disability culture and welfare enhancement”,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pring pp.46-53, 2006.
- [15] Yong Hyun Heo, Seok Hee Han, Young Gon Kim,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Digital Library for the Blind People”, Digital Library Vol. 74, pp. 51-68, 2014.
- [16] Suni Ch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appella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37, pp. 277-302, 2009.

정지영(Jung, Ji Young)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 2002년 6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작곡, 음악이론, 저작권, 대중음악
- E-Mail : jj0842@hansei.ac.kr

이미애(Lee, Mee Ae)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문학사)
- 1991년 6월 :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1997년 6월 :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과(철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책평가, 정책개발
- E-Mail : meeae@hansei.ac.kr